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한민국 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소공연장 특화 거리 조성 및 창작공연 제작 지원을 통해 민간 소공연장의 자생력을 강화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이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경상감영지 국가사적 지정 및 복원, 달성토성 복원, 구암동 고분군 복원,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과 창조적 재생에 노력했다.

문화콘텐츠 창업부문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둬 콘텐츠코리아랩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스마트벤처 캠퍼스는 2017년 현재까지 260팀의 창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체육 3월 2017 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와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국가 간 스포츠 교류로 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스포츠타운, 구·군국민체육센터, 금호강변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건립에도 주력했다.

관광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대구 제1호 관광지로 비슬산을 지정했다. 서문시장이 문체부 주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관광도시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드와 북핵 위기 돌파를 위해 일본·대만·홍콩·동남아 신시장 개척에 나서 전세계 7대(방콕 1대, 하노이 1대, 대만 5대)를 유치했고, '대구공항 입국 관광객'이 2016년 대비 대만 89%, 일본 1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10월 설립한 대구관광부료를 관광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2017년 1월부터 관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 대구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2021년 대구세계가스총회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장〉 류규하

〈부의장〉 최길영, 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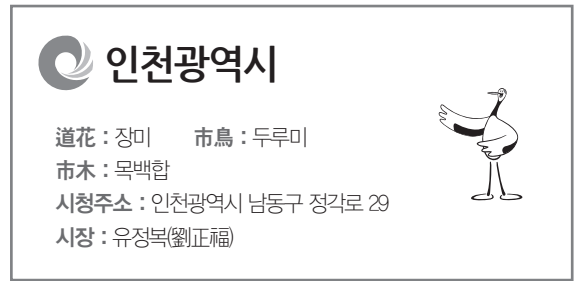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4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017년도 시의회는 정례회 2회 59일

간, 임시회 6회 76일간으로 총 8회 135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회기 내에 14명이 21건의 시정질문, 24명이 61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개관

연혁 문학산·계양산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석기류로 볼 때 인천에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기 시작한 때는 신석기시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익동·주안동·문학동 등에 분포된 지석묘(支石墓)는 청동기시대에 부족 세력이 자리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誌) 등에 의하면 인천은 삼국시대 초기 백제에 속해 미추홀(彌鄒忽)로 불렸으며, 고구려의 영토였을 때는 매소홀현(賈小忽縣)이었다.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됐고,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에 소성현(郇城縣)으로 개칭돼 울진군의 영현이 됐다.

고려시대에는 소성현이 수주(樹州)에 속했다가 숙종(1096~1105년) 조에 모후 인예태후의 출생지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 승격됐다. 인종(1122~1146년) 조에도 모후 출생지라 하여 인주(仁州)로 다시 개칭, 승격됐다. 공양왕 2년(1390년)에는 칠대어항(七代御鄕) 7대에 걸쳐 다섯 왕비가 나온 곳이라 하여 경원부(慶源府)로 승격 개칭됐다.

조선 태조 원년(1392년)에 경원부가 인주로 환원됐다가 태종 13년(1413년)에 인천군으로 다시 격하됐다. 세조 6년(1460년)에 이르러 세종비 소헌황후의 외향이라 하여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돼 말기까지 이어졌다.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인천은 인천부(仁川府)로 개편됐고 건양 원년(1896년)에 다시 경기도 인천부가 됐다.

1910년 조선이 주권을 상실하자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해 부(府)가 됐고 부세확장에 따라 부평(富平)의 대부분을 포함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5일 실시된 지방자치제로 인천부에서 시(市)로 개칭됐다.

1981년 김포군 계양면, 옹진군 영종면·옹유면 등이 편입됐다.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경기도 강화군 전역과 대부분 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역,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됐다.

인천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1,063.1	1,188,917	3,011,138
중 구	140.27	54,525	121,838
동 구	7.19	29,870	70,387
남 구	24.84	182,292	427,604
연수구	54.95	123,913	344,277
남동구	57.05	214,280	548,759
부평구	32.00	215,192	552,162
계양구	45.57	125,936	326,892
서 구	116.90	199,152	527,935
강화군	411.45	31,869	69,543
옹진군	172.88	11,888	21,741

※ 외국인 수 : 6만2천596명 포함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증감률(%)
인천광역시	139,105	125,595	13,510	10.75
분청	89,336	83,166	6,170	7.41
일반회계	65,093	63,017	2,076	3.29
특별회계	24,242	20,149	4,093	20.32
자치군·구	49,769	42,429	7,340	17.29
일반회계	47,121	40,453	6,668	16.48
특별회계	2,648	1,975	673	34.07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당초	구성비(%)	최종	당초	증감률(%)	최종	증감률(%)	
총 계	89,336	100.00	83,166	100.00	95,188	6,169	7.42	△5,852	△6.15	
세입	지방세수입	38,321	42.90	33,167	39.88	35,460	5,154	15.54	2,861	8.07
	세외수입	13,951	15.62	17,622	21.19	19,391	△3,670	△20.83	△5,440	△28.05%
	경상적세외수입	10,247	11.47	10,266	12.34	10,946	19	0.18	△699	△6.39
	임시적세외수입	3,704	4.15	7,356	8.84	8,445	△3,651	△49.64	△4,741	△56.14
	지방교부세	5,180	5.80	5,050	6.07	5,480	130	2.57	△300	△5.47
	국고보조금	22,468	25.15	19,357	23.28	20,779	3,111	16.07	1,689	8.13
	지방채	0	0	38	0.05	0	△38	△100	0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15	10.54	7,932	9.54	14,076	1,482	18.69	△4,661	△33.11	
세출	일반공공행정	11,434	12.80	13,775	16.56	14,595	△2,340	△16.99	△3,161	△21.66
	공공질서 및 안전	1,921	2.15	1,741	2.09	1,921	179	10.33	0	0
	교육	7,542	8.44	6,848	8.23	7,342	693	10.13	200	△2.72
	문화 및 관광	4,373	4.90	4,013	4.83	4,269	360	8.97	104	2.44
	환경보호	8,533	9.55	7,363	8.85	9,308	1,170	15.90	△775	△8.33
	사회복지	28,213	31.58	23,760	28.57	25,379	4,488	18.92	2,834	11.17
	보건	343	0.38	346	0.42	392	△3	△0.89	△49	△12.50
	농림해양수산	1,405	1.57	1,474	1.77	1,928	△68	△4.66	△523	△27.13
	산업·중소기업	631	0.71	578	0.70	655	52	9.05	△24	△3.66
	수송 및 교통	9,937	11.12	7,782	9.36	9,250	2,155	27.69	687	7.54
	국토 및 지역개발	8,152	9.13	8,948	10.76	13,764	684	8.29	△5,612	△40.77
	과학기술	384	0.43	399	0.48	393	△14	△3.73	△9	△2.29
	예비비	399	0.45	578	0.70	349	△179	△30.97	50	14.33
기타	6,062	6.79	5,589	6.72	5,637	472	8.46	425	7.54	

면적·행정구역 동쪽은 경기도 부천시와 광명시, 서쪽은 서해, 남쪽은 시흥시, 북쪽은 김포시와 접해 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총 면적은 1천63.1km²로 남한 면적의 1.06%를 차지한다. 8구 2군, 150개 읍·면·동, 4천401개 통·리, 2만2천726개 반을 관할한다.

재정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12조5천595억원) 대비 1조3천510억원(10.75%) 증가한 13조9천105억원으로 시 8조9천336억원, 자치군·구 4조9천769억원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으로 교육분야가 2017년 대비 10.13% 증가한 7천542억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8.97% 증가한 4천37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15.90% 증가한 8천533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는 2017년 대비 18.92% 증가한 2조8천213억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7.69% 증가한 9천937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부채 획기적 감소, 재정위기 탈출 2014년 13조원이 넘었던 부채를 9조원대로 낮췄다. 39.9%로 재정 위기 '심각'단계 직전까지 갔던 부채비율을 2017년 말 기준 21.9%로 낮췄다. 국가지

원금 확보에 주력한 결과,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4조원 늘었다. 보통교부세는 1조원 이상 증가했고 리스·렌트차 등록지 유치를 통해 취득세·자동차세 1조원을 확보했다.

제3연륙교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 중단됐던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개발이 정상화됐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결정됐다.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기존 2개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 연장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인천 주권시대는 가치재창조로부터 시작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했다. 문화시설 집적단지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타당성 조사와 용역에 착수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행복 더하는 애인(愛仁)정책 실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이를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 15만원도 2018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건립하고 24시간 여성·아동 세이프존 1천 개소를 신규 설치했으며 장애인콜택시를 290대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노력했다. 참전명예수당 8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5만원,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신규 또는 확대 지급했다.

옹진지역의 100원 택시 운영, 틈새지역의 애인(愛仁)버스 신설을 통해 교통복지도 강화했다. 섬 접근성 향상과 도서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시민에 대한 여행객임 지원을 80%까지 확대하고 설·추석 전후 5일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학생·시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우려지역에 CCTV 200대를 신규 설치했다.

희망 나누는 원도심 부흥에 총력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내항, 월미도, 인천역 등 개항장 일대를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해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원했다. 50년 만에 인천 품으로 돌아온 경인고속도로는 2017년 12월 일반도로화 사업에 착수, 2024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해 9개 생활권별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2020년까지 '인천 창업허브'를 구축해 창업지원 주택 200호와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재기펀드 375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 120만원까지 복지포인트 혜택을 주고, 청년들의 창업 소통공간인 '유유기지' 운영 활성화와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등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에 9천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가동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했다. 전통시장의 인프라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쇼핑과

문화가 융합된 특성화 시장 육성에 노력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창업금융융자, 희망키움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미래 위한 성장기반 조성에 투자 확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와 GTX-B, 제3연륙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전략으로 바이오, 첨단자동차, 로봇, 스마트공장 등의 4대 선도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017년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로봇융합 비즈니스센터와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훈련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2022년까지 맞춤형 스마트 공장 1천개소를 공급할 계획도 수립했다.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중이고 기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과 함께 남동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했다.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도 시티타워 건설을 본격 추진했다. 강화남단 지역과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

공업 부평산업단지, 주안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과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하점지방산업단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지구산업단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 등 8개의 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IHP도시첨단산업단지, I-Food Park(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상업 2017년 말 기준 백화점 5개소, 쇼핑센터 12개소, 대형마트 28개소, 전문점 6개소, SSM 93개소 등 총 154개소의 대규모 유통시설이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이 81개소,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가 있다.

사회

주택 2017년 민간부문 1만2천401호, 공공부문 2천863호 등 총 1만5천264호가 준공됐다. 2017년 말 기준 주택 수는 단독주택 25만1천321호, 아파트 61만163호, 연립 2만7천970호, 다세대 23만1천967호 등 총 112만1천421호이다.

교통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151만319대로 2016년 말의 143만7천373대에 비해 72만946대가 늘어 5.07%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26만876대, 승합차 5만5천526대, 화물차 18만7천537대, 특수차 6천380대이다.

보건·후생 의료시설은 총 3천179개소로 종합병원 19개소, 병원 63개소, 의원 1천497개소, 치과 병·의원 886개소, 한방 병·의원 644개소, 요양병원 70개소다. 이 밖에 약국 1천61개소, 한약국 34개소, 도매상 131개소, 한약업사 37개소, 의료기기판매업 2천474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체 2천11개소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2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58개소 등 총 385개소에 1만447명을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55개소, 법인 11개소, 법인 외 17개소, 민간어린이집 800개소, 직장어린이집 65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 6개소, 가정어린이집 1천132개소 등 총 2천186개소가 있다.

교육·문화

교육 대학원 4개교, 대학교 13개교(본교 4곳, 분교 4곳, 외국대학분교 5곳), 전문대학 4개교, 고등학교 125개교, 특수학교 8개교, 중학교 135개교(본교 134곳, 분교 1곳), 초등학교 259개교(본교 249곳, 분교 10곳), 유치원 430개교, 기타학교 14개교가 있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 1점, 보물 28점, 사적 18점, 천연기념물 14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 명승 1점, 등록문화재 8점 등 총 76점이 있다. 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68점, 기념물 65점, 무형문화재 28점, 민속문화재 2점, 문화재 자료 25점 등 총 264점이 있다.

관광 관광자원으로는 관광단지 1개소(강화종합리조트), 관광지 2개소(마니산, 서포리), 관광특구 1개소(월미관광특구), 유원지 6개소(송도, 작약도, 사렴도, 계산, 강화종합리조트, 로보랜드) 등이 있다. 관광사업체는 총 1천93개소로 여행업 572개소, 관광숙박업 126개소, 관광객 이용시설업 128개소, 국제회의업 15개소, 카지노 1개소, 유원시설업 107개소, 관광 편의시설업 144개소가 있다.

문화행사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4월), 고려산신달래축제(4월), 인천항구연극제(4월), 인천광역시사진대전(6월), 화도진축제(5월), 영종그린문화축제(6월), 청라친환경자전거페스티벌(6월), 인천국악대전(4월), 인천광역시시예대전(5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8월), 주안미디어문화축제(9월), 인천광역시미술대전(10월), 인천상륙작전유미축제(9월), 연안부두대축제(10월), 개천대축제(10월), 강화도새우젓축제(10월), 삼랑성역사문화축제(10월), 강화고려인삼축제(10월), 인천-중국이날 문화축제(10월), 부평풍물축제(9월), 소래포구축제(9월), 녹청자축제(10월), 인천송도불빛축제(10월), 능허대문화축제(9월), 서곶문화예술제(9월), 인천메세나아트페어(10월), 전국제물포사진대전(11월), 송년제야의밤문화축제(12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제갈원영

〈부의장〉 황인성, 이강호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3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주요 의정활동 2017년도 회기는 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45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68일), 임시회 6회(63일)

등 총 8회에 걸쳐 13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조례안 등 3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대 의회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및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 토론회·간담회를 8회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25회 실시했다. 청원 11건, 진정 77건, 의원요구자료 393건을 처리했다.

시 분청 및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4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업무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8개교 12개 도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며 10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

道花 : 철쭉 市鳥 : 비둘기
 市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빛돌이
 시청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장 : 윤장현(尹壯鉉)



개관

연혁 광주 지역에 국가단위 사회가 들어선 시기는 마한시대다. 마한 54국 중 신미국(新彌國)을 중심으로 광주와 영산강 유역에 마한연맹왕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해 무진주로 불렸고 직할 3현인 미동부리현(남평), 북룡현(나주 일대), 굴지현(창평)을 통치했다. 신라에 편입된 후 경덕왕 16년(757년)에 무주(武州)로 바뀌며 현 전라남도 지역의 중심 치소가 됐다. 신성여왕 6년(892년)에 견훤이 이곳을 근거로 스스로 왕을 칭하다가 전주로 옮겨가 후백제를 세웠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무주를 광주로 개칭하고 도독부를 두었다. 성종 14년(994년) 10도를 설치하고 절도사를 파견하는 지방제도 개편이 이뤄져 광주는 해양도에 속하게 됐다. 이후 다시 무진주로 불리다가 충선왕 2년(1310년) 화평부(化平府)로 바뀌었다. 공민왕 11년(1362년)에 고려 제2대 혜종의 이름 무(武)를 피해 무진부(茂珍府)로 바뀌었다가, 공민왕 22년(1373년) 광주목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좌·우도가 있었는데 광주는 좌도에 속했다. 세종 12년 목사 구타사건으로 목에서 무진군으로 강등됐다. 문종 원년에 복칭됐다. 성종 20년 광산현으로 강등됐다. 연산군 7년에 복호됐다.

1896년 실시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는 전라남·북도로 분